

메트로폴리스 하이데바라드 총회와

스마트시티

민동환 연구원 cfncopy@si.er.kr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소센터



메트로폴리스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정회원
으로 하는 도시간 국제협력기구이다. 정식명칭은 '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이며, 도시개발, 환경보
전, 삶의 질 향상 등 세계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
제를 해결하고 대도시 상호 간 국제협력과 교류촉진을 통한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4년 파리와 일드프랑스가 처음 제안하였으며,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 정식 설립이 되었다. 현재 사무국은 스페
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다. 총 129개 도시가 정회원으로 있
으며 대표적인 회원도시로는 서울(한국) 바르셀로나(스페
인), 베를린(독일), 상파울루(브라질), 안타나나리보(마다가
스카르)등 이 있다.

불과 30~40년 전인 1970년대에 1,000만 명 이상의 메가
시티 규모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에 뉴욕과 동경 단 두 도시
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메가시티는 23개로 늘었
고,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정도로 도
시의 영향력이 커졌다. 유엔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50년
경에는 약 60억 명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즉, 미래의 도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될 뿐
만 아니라 인류 발전(human development & growth)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도시의 양적
팽창과 중요도에 비해 실질적인 도시민들의 삶의 질은 많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도시민들은 빈곤,
실업, 기초생활 시설의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
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도시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미래
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여야 하는 시점에 왔다.

메트로폴리스는 2014년 10월 6~10일까지 인도 하이테
라바드 노보텔 컨벤션센터에서 세계주요 도시정상들과 도
시관련 전문가, 각도시의 대표단들이 참석하는 제11차 메
트로폴리스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총회에서 이 같은 문제
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였다.

숫자로 보는 2014 메트로폴리스 하이데라바드 총회

1회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처음 열린 국제회의
2개	공식 스폰서
12개	국제기구 파트너
60개	세션 수
73개	인도내 대표단 파견 도시 수
93개	대표단 파견 도시 수
250명	발표자
2882명	총 참석자

그림1 개막행사에 참석한 인도 주요인사



그림2 2014년 제11회 메트로폴리스 총회 본회의장 전경



이번 총회는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이라는 주제로 총 5일간 개최가 되었고, 도시개발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총 60여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중국과 함께 세계 도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도시들의 미래 성장전략에 주목하였다.

이번 총회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의 의미는 도시는 더 이상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이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을 공간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도시개발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을 뜻한다.

스마트 시티에서 도시의 미래를 보다

개막식 첫날 개막식에 참석한 인도 도시개발부 장관 벤 카이야흐 네이두는 인도의 미래 도시개발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한 인프라 확대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시티의 개발이 단순한 도시개발 차원을 넘어서 농촌 이주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인도 및 저개발국가의 많은 농촌 거주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하여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자체의 인프라 부족, 일자리 창출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삶의 질 저하와 도시 경쟁력 저하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재의 도시 개발 방식으로는 위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IT 시스템을 접목한 도시관리 기술 도입, 도시철도 및 도시교통시스템 도입, 민관합동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도입은 도시민의 삶 개선 뿐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스마트시티로의 성공사례로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예시로 들었다. 하이데라바드는 스마트시티로의 개발이라는 비전 아래 도시철도건설, 도시미관정비, 도시인프라시설 현대화 등을 통하여 연간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삶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프리미너리세션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도시(Cities for All-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기조연설자인 인도 전 총리 압둘카림은 '에코시티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에코시티로의 전환의 핵심은 카본프리 시티(Carbon -free city)를 만드는 것이다. 카본프리시티 개발은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직면한 대기오염, 폐기물 문제, 수질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림3 인도 전총리 압둘카람은 “에코도시 만들기가 도시의 미래”라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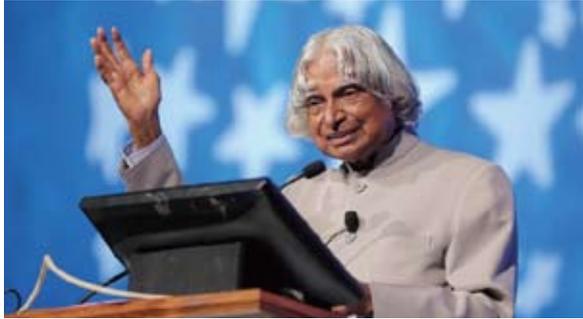


그림4 개막식에서 인도 도시발전 방향에 관하여 설명하는 인도 도시개발부 장관



스마트시티에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014년 인도 16대 총리로 당선된 나렌드라 모디는 인도의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재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거불안정, 에너지 부족, 공해 발생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100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인도의 스마트시티의 특징 중 하나는 도시 교통에 중점을 둔 점이다. 그로 인하여 도로 재정비, 도시철도(모노레일, 도시간 철도), 공항 등의 교통수단 건설로 도시인프라 건설을 통한 도시편리성 향상과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본프리시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 상승, 태양열 에너지 활용(Solar energy), 신재생에너지 활용(Renewable energy)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에코 시티 건설은 스마트시티와 상이한 개념이 아닌 서로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개념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실현이 되기 위한 4가지 실천 과제로서 1) 도시 발전의 철학과 비전 수립, 2) 민주적인 실행 과정 수립, 3) 이해당사자들(시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의식 함양, 4) 다른 도시의 우수사례 학습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을 통해 미래 도시의 해법을 찾다

이번 메트로폴리스 총회에서 가장 큰 행사였던 개막식과 프리미어리세션이 끝나고 남은 3일 동안 소규모 기술 회의(Technical Session)로 나누어 이번 총회의 서브테마인 도시평등(Urban Equity), 도시행정(Governance), 도시재정(Finance), 인도 도시개발(Urban India) 등의 주제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의 발표에서 한국과 서울의 사례가 많은 세션에서 소개가 되어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알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도시 및 위성도시(New Cities and Satellite Cities)에서는 인천 송도의 사례를 공항위성도시의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발표하였다. 또한 이때 신도시 건설의 폐기물 처리와 도시교통시스템의 개선으로는 서울의 사례를 설명하였고 많은 참석자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서울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증하듯 마지막날 진행된 서울세션(Mega Cities ‘Seoul Sharing’)에는 인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참가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션에서는 서울시의 교통, 환경, 도시안전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한 신상

그림5 메트로폴리스 서울세션에서 교통분야 발표를 하는 고준호 센터장



그림6 메트로폴리스 서울세션에서 환경분야 발표를 하는 최유진 연구위원



영 연구위원은 안전한 도시에 관한 이슈와 이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고준호 세계도시연구센터장은 서울시 교통시스템 개편과 미래 서울의 교통시스템 개선에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개별 면담시간에도 인도 공무원들은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및 유비쿼터스 시티를 만든 과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인도 도시의 스마트화에 서울시가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¹ 

메트로폴리스에서도 인정한 '서울공유도시 정책'

마지막 공식행사로 진행된 제5회 메트로폴리스 어워즈(5th Metropolis Awards)에서 서울시는 서울공유도시프로젝트로 우수 특별상(1st Special Mention)을 수상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공유라는 컨셉을 기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수상은 서울의 우수정책이 전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광역시는 대표마을재생사업인 '산복도로재생프로젝트'로 본상 1위를 수상하였고, 두 도시 이외에도 수상 도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잔, 스페인의 마드리드이다.²

그림5 서울시인재개발원 문홍선 원장이 메트로폴리스 특별상 수상



그림5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수상자 기념 촬영 사진



1 서울공유세션의 발표자료는 서울정책아카이브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seoulsolution.kr/data>]

2 자세한 수상내역은 제 11차 메트로폴리스 총회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hyderabad2014.metropolis.org/5th-metropolis-awards>]